

동북아시아지역간의 관광교류와 협력

니가타시의회의장 다카하시 미쓰요시

이번 포럼개최에 즈음하여, 지대한 힘을 주신 충청남도의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회(제6회)포럼에서는 많은 대표단이 니가타시를 방문해 주셔서 동북아시아지역에 있어서의 다양한 문화에 관하여 상호이해를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한층 새로운 교류·협력관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확인하며 일보전진한 회의가 되었습니다. 본 포럼의 목적에 입각하여 금회의 테마인 동북아시아지역의 관광교류와 협력에 관하여 제언을 하겠습니다.

1. 일본에 있어서의 관광동향

먼저, 일본에 있어서의 관광동향에 관하여 소개합니다.

일본정부는 2003년에 방일 프로모션사업(비지트 재팬사업)을 개시하여 2013년에는 방일 외국인 여행자수 1,000만 명을 달성하였습니다. 그 직후부터 「2020년까지 방일 외국인 여행자수 2,000만명의 달성한다」라는 목표를 내걸고 손님유치에 총력을 기했습니다만, 작년(2015년)은 역대최고인 1,974만 명에 이르러 2020년을 채 맞이하기도 전에 2,000만 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일 외국인여행자의 체재 지역을 일본 47도도부현 별로 집계해 보면 동경-나고야-교토-오오사카 간을 잇는 골든 루트라고 불리워지는 지역의 8도부현이 전체의



약62%를 차지하고 그 외의 약38%가 우리 니가타현을 포함한 나머지 39도현이 업치락 뒤치락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근년에는 방일외국인 여행자의 증가에 의해 수도권에서는 숙박 시설과 버스의 부족, 숙박비 양등 등의 영향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만, 한국, 중국 등의 재방문자는 일본에서의 새로운 방문 지역을 찾아 조금씩 지방도시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동경(일본)에서 하계 올림픽 · 파라림픽(국제장애인 올림픽대회)의 개최가 결정되어져 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이것을 계기로 내방하는 외국인손님을 받아들일 환경정비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면, 알기 쉬운 도로표식이나 안내사인의 정비, Wi - Fi 환경의 정비, 다중 언어 표기 화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또, 전통일본 여관의 일본식화장실을 서양식으로 개조하고 국제방송TV의 정비 등과 외국인이 이용하기 쉬운 숙박시설을 늘려 관광지의 호텔 부족 해소를 꾀하고 있습니다.

2. 니가타시에 있어서의 관광동향

다음으로 니가타시 관광의 현황과 추진에 관해서입니다.

니가타시에 관한 수치 데이터를 보면, 2009년 이후 관광에서의 니가타시 내방자는 증가경향에 있습니다.

또, 외국인 연 숙박자수에 관해서도 2011년 이후는 증가 일로에 있고, 속보수치입니다만 작년(2015年)은 전년 대비 38.6%가 증가하여 약 59,000명에 이릅니다. 관광을 둘러싼 정세는 사회정세와 경기의 영향 등에 의해 시시각각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니가타시의 관광 착수에 관해서는 국가와 현, 타 지방자치체를 필두로 시내의 숙박 시설이나 여행대리점 등의 관광관계자와 함께 니가타시 만의 독특한 음식과 꽃, 항구도시문화를 배경으로 한 풍부한 자연, 온천, 문화, 이벤트 등의 관광자원, 또 일본해안의 거점지로서의 지리적인 우위성과 공항 · 항만 · 육상교통망이 충실한 교통요지라는 점등의 강점을 살려서 국내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극동러시아,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국외에서도 관광객유치를 꾀하고 있습니다.

현지 여행사나 매스컴용의 관광 프로모션, 세일활동을 하여 여행상품조성을 추진함과 동시에 현지에서 개최되는 관광PR이나 이벤트, 여행 박람회 등에 참가하여 현지의 일반 소비자에게 본 시의 매력을 발산하여 손님유치에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또, 국제회의와 전시회·시범도시, 이벤트 등의 유치이외에 애프터 컨벤션의 충실, 문화·스포츠 커미셔너와의 연대, 컨벤션 볼런티어의 육성, 파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가타시의 매력향상에 관하여서도, 농가 레스토랑이나 농업 체험 등을 이용한 니가타시만의 독특한 어그리투어리즘(농촌민박, 도시거주자 등이 농장이나 농촌에서 휴가·여가를 보내는 것)을 시작으로 식문화 체험형의 투어리즘(tourism. 관광여행, 관광사업, 관광업)을 전개하는 것 외에 본 시가 가지고 있지 않는 매력을 타 도시와의 연계에 의하여 상호 보완하는 등의 매력 있는 에어리어의 형성과 광역 관광 루트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광객을 받아들이는 환경정비에 관해서는 관광 팸플릿의 배포 또 관광 안내기능의 충실, 관광 순환 버스의 운행, 안내사인의 정비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외에서의 관광객이 안심과 불편 없이 체재하실 수 있도록 Wi-Fi 환경의 정비, 다중언어 표기화, 외화 환전, 소비세 면세점, 캐싱에 관한 정보발신 앱 등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북동 아시아 각국과의 입구에 니가타 공항, 니가타 시가 있다는 것은, 큰 메리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겨울에 니가타현 내의 스키장에 가는 것이 목적인 여행객에게는 니가타 공항으로 입국하셔서 우선 니가타시를 관광하신 후 산간부의 스키장으로 향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니가타시에는 국제공항이 있습니다만, 니가타항구는 크루즈 객선의 입항과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용선계약이 된 크루즈객선이 입항한 실적은 있습니다만, 이것을 한층 확대 시켜 니가타시의 크루즈 진흥에 결부시키고 싶은 생각입니다.

또한, 동경에서의 숙박비가 양등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니가타시는 동경에서 신간선으로 2시간 이라고 하는 좋은 조건을 살려서 나리타공항이나 하네다공항에서 일본으로 입국한 외국인 여행객도 니가타로 오실 수 있도록 공리를 하고 있습니다.

니가타시의 매력을 높이고 정보를 발신하여 「니가타시를 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니가타시를 다녀가신 분들로 부터는 「니가타는 참 좋았다, 또 가고 싶다」라고 느낄 수 있는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동북 아시아에 있어서의 협력

다음으로,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관광분야의 협력에의 기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니가타시는 현재 동북 아시아의 5대 도시와 자매·우호 도시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이들 도시와는 시민에 의한 상호방문의 기회를 가질 것을 행정으로서도 지원하고 있고 문화, 교육,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깊게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니가타시의회로서는 자매·우호도시 이외의 도시와도 서로의 의회와 협력교류 각서를 교환하고 있는 이외에 이 동북아시아 지역 지방의회 의장 포럼에는 제 1회부터 매회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방의회의 분들과 교류하고 의견교환을 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협력관계의 발전을 기대함과 동시에 이 네트워크를 관광분야의 협력에 활용해 갈 것을 니가타시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유엔세계관광 기구(UNWTO) 발표의 세계관광동향에 의하면, 국제관광객 도착수에 있어서는 유럽의 세어는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서서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비해 아시아 태평양의 세어가 최근 10년 사이에 4.0포인트 증가하여 매우 두드러진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에는 동경(일본)에서 하계 올림픽·파라림픽이 개최되고 그 전의 2018년에는 평창에서 동계올림픽·파라림픽이 개최됩니다.

세계 속에서 지금 이상으로의 아시아가 클로즈업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 니즈를 적격하게 파악하여 관광정책을 추진할 것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인하여 우리 동북아시아 지역의 지방의회 및 정부의 구체적인 활동을 검토하고 상호 협력하는 것으로 관광시장의 활성화와 확대에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럼에 참가하시는 각 지방의 관광정보 등을 집약해서 각각의 의회대표단은 각 정부의 담당자나 관광협회 등에 각 지역의 정보를 집약한 성과물(자료)을 보내드림과 함께 관광객의 니즈에 부합한 여행상품조성에의 협력을 꾀한다면 어떠하십니까?

또, 행정이나 의회가 깊은 교류를 가지는 것에 의해, 지방 상호간의 신뢰관계 구축에 연계함과 동시에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교류 발전과 회의, 이벤트 등의 유치 등을 기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교류가 활발해 지는 것은 서로의 관광시장의 발전에 좋은 영향을 끼치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동북아시아에 의한 평화와 교류의 더한층 새로운 발전을 위해 니가타시 의회는 앞으로도 본 포럼에 참가하시는 모든 분 그리고 개최지의 (주민) 여러분과의 교류를 소중히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되지만, 충청남도의 여러분, 그리고 포럼에 참가하시는 모든 분의 건승과 번영을 기원 드립니다.